

30일간의 한여름밤의 축제 무주덕유산리조트 '썸머 페스티벌'

본격적인 무더위와 함께 시작된 휴가철을 맞이하여 무주덕유산리조트(대표 이길범)는 8월 20일(토)까지 매일 저녁 7시부터 10시까지 덕유산의 청정한 자연이 선사하는 맑고 한 폭적인 바람을 맞으며 즐길 수 있는 '2016 썸머 페스티벌'이 진행된다.

시원한 바람과 계곡, 덕유산 전체의 자연환경을 갖춘 무주덕유산리조트는 평균 고도 해발 750m의 고원에 위치하고 있어, 아침 저녁에는 쌀쌀함마저 느껴질 정도로 시원한여름을 보낼 수 있는데다 다양한 공연을 선보이는 '썸머 페스티벌'이 더해져 무더위를 잊게 해준다.

7080부터 8090까지 세대를 아우르며 즐길 수 있는 통기타 공연과 파워풀한 댄스와 한국적인 스토리 퍼포먼스를 선보이는 B-Boy, 그리고 화려하고 색다른 댄스를 선보이는 K-POP 여성 댄스, 간드러지고 맛깔나는 노래를 선보이는 신세대 세미 트롯과 한여름밤의 뜨거운 열기를 증폭시킬 락밴드공연, 신나고 경쾌한 음악과 함께 하는 신비로움이 가득한 마술쇼, 컬러풀 MC가 진행하는 신나는 레크레이션, 고객들의 참여로 이루어지는 도전 톨렛 노래방 등 다양한 장르의 공연 이벤트가 무주덕유산리조트의 이국적인 건축 양식과 조화를 이루며, 마치 유럽의 거리에서 한여름 휴가를 즐기는 듯 한 색다른 즐거움과 특별한 추억을 선사한다.

무주덕유산리조트에서 즐기는 한여름밤의 축제 "썸머 페스티벌"은 매일 저녁 7시부터 밤 10시까지 카니



무주덕유산리조트는 8월 20일까지 '2016 썸머 페스티벌'을 진행한다. 사진은 비비이 공연 모습.

발 이벤트 광장, 하드락 광장, 원형무대, 호텔테라스 노천카페에서 무료로 즐길 수 있다. 이벤트 및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www.mdysresort.com을 참조하거나, 대표전화 063-322-9000로 하면 된다.

/무주=전문선 기자



익산예술의전당,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 서울예술의전당 공연실황 상영

익산예술의전당은 '문화가 있는 날' 공연영상화 사업 일환으로 '썸 온 스크린(SAC On Screen)'을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를 위해 전당은 오는 27일부터 12월 28일까지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 오후 7시 30분 송리문화예술회관 중공연장에서 서울예술의전당 공연 실황을 상연한다.

'썸 온 스크린'의 썸(SAC)은 서울예술의전당 영문인 서울아트센터(Seou Art Center)의 약자로 이는 서울예술의전당 우수 공연을 대형 스크린을 통해 시간과 거리의 제약 없이 전국 어디서나 함께 보고 즐김과 동시에 지역 문화의 격차를 좁히기 위한 프로젝트다.

전당은 27일 <발레 호두까기 인형>작품 영상을 시작으로, 8월 31일에는 <오페라 마술피리>를, 9월 28일에는 <베를린 필 하모니 카메라타>를, 10월 26일에는 <현대무용 춤이 말하다>를, 11월 30일에는 <발레 지젤>을, 12월 28일에는 <김신욱 피아노 리사이틀>을 각각 차례로 상연한다.

이번 영상화 사업에는 10대 이상의 카메라를 동원해 무대 위의 생생한 음향을 역동적으로 전달할 예정이다. 또한 객석에서는 볼 수 없는 무대 뒤 연주자의 표정과 몸짓을 영상으로 담아내 현장감을 더할 계획이다.

익산예술의전당은 관계자는 이번 공연 중계를 통해 익산 시민들의 공연관람 및 문화수준의 폭이 한층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공연관람은 무료이며, 공연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063-859-5278로 하면 된다. /정해은 기자



한식창의센터는 초등학생 자녀와 학부모를 대상으로 전통요리체험 교육을 진행한다.

한식창의센터, 전통요리문화체험 참여자 모집

초등생 자녀와 학부모 대상

한국전통문화전당 한식창의센터는 오는 8월 3일부터 17일까지 초등학생 자녀와 학부모를 대상으로 전통요리체험 교육을 진행한다.

이번 교육은 방학을 맞은 아이들이 궁중음식과 제철음식을 직접 만들어 보면서 전통음식에 대한 우수성과 조상들의 지혜를 체득할 수 있는 문화체험형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었다.

강의는 8월 매주 수요일인 3일과 10일, 17일 총 3회에 걸쳐 오전 10시~오후 12시

30분 열린다. 최춘경 아동 요리강사의 교육으로 3일에는 꼬마떡갈비·백설기를 10일에는 규아상(여름만두미자화채)을 17일에는 가지선·꽃화전 만들기 프로그램이 운영될 예정이다.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 할 총 30팀(부모와 자녀 2인 1팀씩)은 오는 29일 오후 12시까지 선착순 모집한다. 5만원의 체험비용은 별도로 부담해야 한다.

접수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전통문화전당 홈페이지(www.ktcc.or.kr) 고시공고 게시판에서 확인 가능하다. 한식창의센터 시무방 281-1583. /정해은 기자

'뮤지컬 빌리'에서 발레리노 된 전준혁 "이젠 로열발레단 도전"

"스타보다 인디밴드 같은 무용수가 되고 싶어요. 많은 분들이 알지 못해서도 아시는 분들은 정말 좋아하시고, 쉽게 다가갈 수도 있는 발레리노요."

한국 발레계 기대주 전준혁(18·사진)은 자신에게 쏠린 관심에도 의연했다. "아직 부족해요. 한참을 더 해야합니다"라며 속스러운 미소를 지을 뿐이다.

키 181cm의 훗날 창년이 된 그는 프로 무용수가 아님에도 국내에 꽤 많은 팬을 보유하고 있다. 초등학교 4학년 때인 2010년 뮤지컬 '빌리 엘리어트' 한국 프로덕션 초연 당시 뛰어난 재능으로 1대 빌리로 내정됐다. 발레에 집중하고자 자진 하차했다. 덕분에 발레·뮤지컬 양쪽 팬들에게 얼굴을 알렸다.

이후 파리오페라발레단, 미국의 아메리칸 발레 시어터(ABT)와 함께 세계 3대 발레단으로 통하는 영국 로열발레학교 소속 로열발레학교의 첫 한국인 남학생이 됐다. 아시아인 남자로서는 처음으로 전액 장학금까지 받았다.

"학교에 속해 있다는 자부심을 많이 불어넣어주세요. 실력이 걸맞은 예의를 갖추어야 한다고 강조하시죠. 자긍심도 있고 확실이 이번에 콩쿠르를 나가서 보니까 우리 학교 학생들의 수준이 높더라고요. 타학교 친구들이 질투하고 그래요. 하하."

웨스트엔드에서 공연한 뮤지컬 '빌리 엘리어트'에서 빌리를 연기한 배우 스톡 맥



킨지를 발레학교에서 만나기도 했다. "선배인데, 제가 출연했을 뻔했던 뮤지컬의 주인공을 만나기 모하더라고요. 한국 언론에 이름이 나왔다고 알려주면 좋아할 거예요. 하하."

빌리를 포기한 것이 아쉬울 법도 한데 "제 꿈은 뮤지컬배우가 아닌 발레리노였다"며 선을 그었다. "뮤지컬 속 빌리가 아닌 진짜 빌리가 되고 싶었거든요."

올해에는 세계 권위의 발레 콩쿠르인 '2016 유스 아메리카 그랑프리(Youth America Grand Prix·YAGP)'에서 시니어 부문 그랑프리(대상)를 차지했다. 올해 이 대학의 한국 예심을 유치한 발레리나 서희(30·ABT 수석무용수)가 2003년, 한국 남자 무용수로는 처음으로 '2016 브누아드 라 망스'를 차지한 발레리노 김기민(24·마린스키 발레단 수석무용수)이 앞서 이 상을 받았다. /김기민 기자

도문화관광재단, 28일 문화정책포럼

(재)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은 28일 오후 4시 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 2층 전시실 미라네에서 제1차 문화정책포럼 <담론과 담화>를 연다.

도민과 전라북도 문화예술 분야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이번 포럼은 '항유자 만족을 위한 전라북도 문화정책 과제'라는 주제 하에 발표와 토론이 진행된다.

이날 토론에는 국가와 지역의 차이, 문화항유 정책과 그 효용성 등에 초점을 두고 발전적인 논의를 이끌어갈 예정이다.

발제자는 전북연구원의 장세길 박사가 맡는다. '문화항유권, 현황과 방향 패러다임 전환에 따른 문화항유 정책방'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문화항유와 관련한 국가적 방향성 및 전라북도의 실태를 진단한다.

주제발표에 따른 토론에는 손동혁 인천문화재단 정책연구팀장, 은수정 전북일보 문화부장, 최기춘 삼천문화의집 관장이 참석한다. 문운걸 예원예술대학교 교수가 토론의 좌장을 맡아 진행한다.

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은 7월 제1차 문화정책포럼을 기점으로, 연말까지 총 3회(9월, 11월)의 포럼을 기획·운영한다.

올해 포럼은 문화예술의 중요한 축인 항유자·생산자·매개자에 초점을 두고 전북 문화정책을 묻다 I·II·III 시리즈로 진행할 계획이다. /정해은 기자

구독·광고문의 288-9700

홍주미 백운철학연구소 소장 H.P: 010-6890-1468, 홈페이지: http://www.philsilab.com/ (2016년 7월 26일)

<p>▷쥐띠 46년생: 지나친 욕심으로 인해 곤란한 상황이 발생하니 마음을 비워라. 60년생: 새로운 기술을 습득하거나 방법을 배우기에 좋다. 72년생: 크게 움직이는 것은 불리하다. 84년생: 편법을 이용하면 만민에게 밝히게 된다.</p>	<p>▷소띠 49년생: 동기간의 구설에 휘말릴 수 있는 운. 61년생: 듣기 좋은 말은 독이 될 수도 있는 법. 73년생: 한가면에 많은 일을 하려 하지 마라. 85년생: 사소한 일에 동요가 되는 운이니 마음에 중심을 세우고 휘둘리지 말아야 하겠다.</p>	<p>▷호랑이띠 50년생: 문서 작성할 때 꼼꼼하게 살펴봐야 하는 운이다. 62년생: 신중하게 생각하고 행동해야 하는 운이다. 74년생: 상황에 끌려가지 말고 주도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라. 86년생: 다른 사람의 의견이 엇갈리는 운이다.</p>	<p>▷토끼띠 51년생: 지나친 욕심은 화를 부른다. 63년생: 일적인 부분에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운. 75년생: 하고자 하는 일을 조심스럽게 진행하라. 87년생: 이렇사름으로 인해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되니 미리 대비해야 한다.</p>
<p>▷용띠 52년생: 처음에는 힘들고 고독하나 나중에는 뜻대로 이루어지니 마음을 편하게 가져라. 64년생: 타인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좋은 운이다. 76년생: 속마음과 다르게 언행을 하니 솔직한 자기표현이 필요한 운이다. 88년생: 먼저 내보내면 후에 더 큰 이익이 있다.</p>	<p>▷뱀띠 53년생: 정신적인 압박은 있으나 심리적인 부분일 뿐이다. 65년생: 타인에게 본의 아니게 큰소리 낼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한다. 77년생: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는 혼자 고민하지 말고 도움을 구하라. 89년생: 동기간과 함께 하면 불가능한 일도 해낼 수 있는 운이다.</p>	<p>▷말띠 54년생: 정신적으로 힘들게 했던 것에 대한 해결이 가능한 운. 66년생: 순간적인 감정에 휘둘리지 말고 이성적으로 대처해야. 78년생: 허나를 잃으면 둘을 얻을 수 있는 운. 90년생: 자신의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운.</p>	<p>▷양띠 55년생: 금전을 빌려주거나 투자는 좋지 않다. 67년생: 뜻밖의 귀인을 만나게 되니 어려움이 있으면 주변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라. 79년생: 가장 가까운 사람과의 불화가 예상된다. 91년생: 중요한 일은 다음으로 미루고 내실을 다지는 것이 좋을 때.</p>
<p>▷원숭이띠 56년생: 원행은 삼가는 것이 좋다. 68년생: 평소에 믿었던 사람에게 실망할 일이 생기는 운. 80년생: 평소 배운 덕이 복으로 돌아오는 때이니 긍정적으로 생각하라. 92년생: 하고자 하는 일에 정신적 소모는 많고 얻는 결과는 적으니 무리하지 말아야 하는 운.</p>	<p>▷닭띠 57년생: 금전이 들어왔으나 작은 일은 성공한다. 69년생: 집중력을 요하는 일이 있다면 미루지 말고 시작하라. 81년생: 대가를 바라다면 실망이 크니 마음을 비워라. 93년생: 평소 배운 덕이 복으로 돌아오는 때.</p>	<p>▷개띠 46년생: 근친으로 인해 근심 걱정이 생기는 운. 58년생: 처리해야 하는 일은 일찍 움직여야 성사 된다. 70년생: 다른 사람의 덕은 보기 어렵다. 82년생: 처음에는 구설이나 후반에는 화합이나 먼저 배풀면 회답이 있을 것이다.</p>	<p>▷돼지띠 47년생: 이상의 도움을 받으면 쉽게 해결된다. 59년생: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으면 성사가 가능하다. 71년생: 건강에 주의해야 하는 운. 83년생: 나이갈 때와 물러갈 때를 알고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p>